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봉환, 불교가 이끈다

유해봉환委서 스님들 대표로 활동 나서
종단협 · 관음종 등도 추모사업 전개해와

日 국평사서 33구 봉환
서울시립공원묘지 안치
국민의식 제고 비롯해
재정 확보 과제 떠올라

최근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가 일본서 국내로 봉환되면서 이와 관련된 한국불교계의 숨은 노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상임위원장 무원)'는 8월 6일 일본 도쿄 히가시무라야마시 소재 재일동포 사찰 국평사서 일제강점기 노무동원자들의 유해 33구를 국내로 봉환했다.

위원회는 북한 출신이자 국평사 주지인 윤벽암 스님이 재일동포 무연고자들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해 일본을 방문, 국내 봉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에 실무진들이 의사를 타진한 뒤 7월 초 상임위원장 무원 스님이 윤벽암 스님을 만나 최종적으로 봉환에 합의했다. 이번에는 합의된 유해 101구 중 33구를 1차로 봉환했다. 유해는 8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서울시립공원묘지에 안치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선조들의 유해 봉환에는 스님들의 공로가 컸다. 현재 위원회는 상임위원장 무원 스님(대전 광수사 주지)과 공동위원장 신광 스님(서울 경천사 주지) · 김삼렬 독립유공자유족회장이 대표로 활동 중이다. 무원 스님은 4년 넘도록 위원장을 맡아 유해 봉환에 앞장섰고, 최근 합류한 신광 스님은 실무 전선에 뛰어들어 의식을 집전하고 언론계에 이를 홍보하고 있다.

공동위원장 신광 스님은 "일본에 있는 선조들의 유해는 약 50만구로 추정된다. 이 중 무연고 유해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역사의 아픔을 풀어간다는 취지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일본 국평사 앞에서 유해봉환위원회 관계자들과 국평사 주지 윤벽암 스님 등이 국내로 봉환해올 희생자 유골함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

남북한 공통적으로 해당된다는 점에서 남북통일 염원과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강제징용자 유해 봉환에 대한 정관계 인식이 높진 않지만 희생자 추모 사업은 불교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지난해 1월 일본 야마구치현 죠세이탄광 추모비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영령 위령재'를 봉행했다. 위령재는 2015년 일본서 열린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서 외교부 관계자가 추모행사를 종단협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역시 지난 2월 같은 곳에서 위령재를 봉행해 선조들의 넋을 기렸다. 관음종은 2015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일제 징용자 유골 봉환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무원)은 2015년 러시아 사할린서 강제이주 희생자 합동 추모비 제막식과 위령재를 봉행하고, 추모관을 기공했다. 사할린에는 2005년 前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방문해 위령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해 봉환만큼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해봉환위원회 대표들의 출자금과 회원들의 십시일반 기부금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상황이다. 1차로 유해 33구만 봉환해 온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무원 스님은 "선조들의 유해 봉환을 연속사업으로 이어가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단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내로 봉환해올 유해가 많아 위원회가 디딤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영혼불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00일 기도로 새 터전 마련"

환경연대, 공간마련 기도 입재

조계사 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서 힘겹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불교환경연대가 새 보금자리 마련에 나섰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8월 10일 조계사 인근 국청회 법당서 불교환경연대 공간 마련을 위한 100일 기도 '녹색불교의 힘찬 전진' 입재식을 거행했다. 기도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월 7일까지 매일 오전 8시, 오후 4시 · 7시 조계사서 진행된다.

불교환경연대는 조계사 신도회관 사무실을 사용했지만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으로 인해 현재 컨테이너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이번 100일 기도는 안정적인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모금도 함께 진행된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대표로 낭독한 모연문에서 "불교 내 든든한 환경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불교환경연대에 힘을 실어 달라. 녹색불교의 힘찬 전진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법일 스님은 "이번 100일 기도를 통해 사무실을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도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형 수습기자**

"청와대 미남불, 경주로 반환하자"

혜문 대표, 청와대 · 국회에 진정서 제출


청와대에 보관중인 석조여래좌상.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로 통일신라불상이다.

청와대 경내 보안구역에서 놓여 있는 석조여래좌상(이하 청와대 불상)을 본래 자리인 경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청와대 불상 제자리 찾기에 관한 진정을 8월 7일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명 '청와대 미남불'이라고도 불리는 청와대 불상은 높이 110cm로 8~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됐으며, 현재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됐다.

이 불상이 청와대 보안구역에 있게 된 과정은 질곡의 근현대사와 함께 한다. 일본인 오하라는 1913년 경주서 해당 불상을 불법 반출했으며, 이를 데라우치 총독에게 선물했다.

실제, 1939년 조선총독부박물관 직원의 관련 조사서에는 "데라우치 총독이 경주를 순시할 제 그 석불을 보되, 재삼 되돌아보며 숙시(熟視)하기에 당시 소장자였던 오하라가 총독의 마음에 몹시 들었음을 눈치채고 즉시 서울 총독관저로 운반하였다"고 기재돼 있다.

일제에 의해 불법 반출된 성보문화재가 청와대 경내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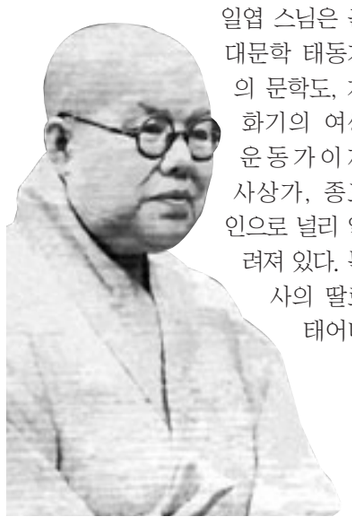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진정을 통해 "조선총독부로 불법반출된 통일신라 불상이 지금까지도 청와대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청와대 불상이 경주로 돌아가 경주국립박물관에 전시된다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제강점기 문화재 약탈문제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개화기 여류 文人' 일엽 스님 평전 발간

영문판 〈여성과 불교철학:김일엽 선사를 통하여〉 출간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비구니이자 문인, 사상가인 일엽 스님(1896~1971 · 사진 아래)의 평전 〈Women and Buddhst Philosophy: Engaging Zen Master Kim Iry¤þ(여성과 불교철학:김일엽 선사를 통하여)〉가 영문판으로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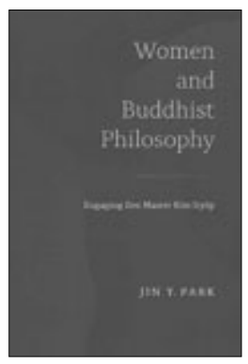


일엽 스님은 근대문학 태동기의 문학도, 개화기의 여성운동가이자 사상가, 종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신학문을 수료하고 도쿄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 여성으로, 개화기 최초 여류 문인으로서 이름을 떨쳤지만 홀연히 출가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번 출간은 일엽 스님의 생애와 불교사상을 기록한 것으로, 자신의 뜻이 전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랐던 일엽 스님의 생전 바람에 따라 영문판으로 제작됐다.

책은 1부 '출가 전'과 2부 '출가 후'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일엽 스님의 탄생과 성장배경, 기독교, 교육과 여성, 문학 작품 및 신여성 문제 등을 다루며 2부에서는 스님의 불교적 사상이 담겼다.

저자 박진영 아메리칸대학 철학과 교수는 8월 8일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일엽 스님은 불교를 종교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계해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에 주목했다. 특히 당시 사회제도에서 느낀 한계를 인간존재 근본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시켜 극복하려는 노력이 매우 창조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확장적인 일엽 스님의 해석이 세계 불자들에게 반드시 통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교수는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대학의 철학과 교수이자 동양학 프로그램 디렉터로, 김일엽문화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번 평전을 주제로 7월 25일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 강연 등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불교와 여성철학〉 〈한국근대불교의 형성자들〉 〈메를로 뽕띠와 불교〉 〈불교와 해체철학〉 등이 있다. **박아름 기자**

"청년세대 접점 無, 불교적 감성 갖추자"

백년대계본부, 시민단체 좌담회서

청년세대와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한국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과제로 도출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공동본부장 도법 · 호성 · 금곡)는 8월 8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시민단체 초청 제2차 좌담회를 열고, 한국불교가 위기를 헤쳐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준비해야할 부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에는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 박상진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팀장,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이향민 인드라망연구소장, 정웅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대부분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불교계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청년세대를 위한 콘텐츠 부족과 종교인구 급감에 따른 위기의식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짚었다. 그러면서 눈높이를 맞춘 포교방법 연구와 사찰 유휴토지를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윤호섭 기자**

2017학년도 생활풍수 최고지도자 과정 제15기생 모집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의 도약'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이루십시오

풍수지리 전문가를 향한 꿈의 날개를 펴라!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통의 최적지인
서울 남산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인의 길, 풍수지리사로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를 모십니다

국무총리실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21세기에 요구되는 전문가로의 탄생!
21세기는 전문가 시대!
풍수지리학의 이론과 현장실습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격기본법에 의한 양택감정사,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풍수지리 전문가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입학안내
■ 접수기간 _ 2017년 8월 1일 ~ 2017년 9월 4일
■ 접수처 _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사회과학관)
■ 문의 _ 생활풍수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연구실
02)2260-8576 / 010-3795-5088(박종희)
주임교수 _ 심재열 박사 010-5282-3388

모집요강
■ 입학자격 _ 모든 일반인 남·여대상
■ 입학정원 _ 50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_ 220만원(학기당)
■ 실습비 _ 별도

교육특전
■ 동국대학교 총장 수료증, 행정대학원 원장 인증서 수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풍수지리사, 양택감정사 2급,1급 자격증 수여
■ 수료 후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 추천

교육기간
■ 개강 _ 2017년 9월 5일(화요일)
■ 교육기간 _ 1년(2학기), 학기당 16주, 17회
■ 장학제도 _ 승려 30%할인, 동국대학교 동문 20%할인

원서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_ 입학지원서 1부, 사진(3x4cm)3매
■ 원서교부방법 _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_ ① 온라인 - http://gspa.dongguk.edu 접속 후 입학지원
② 홈페이지 - www.iysps.com(요산풍수지리학회)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우 04620)
■ 전화접수_전화로 인적사항 통보 후 등록금 송금
국민은행 068837-04-006675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